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해하노라

-저자미상-



내 아이야, 배가 고팠느냐? 나도 빵이 필요했었다.
 천사가 먹여 주기까지 사십일 동안 나도 아무것도 맛
 보지 않았었다.
 목말랐었느냐?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나도 목말라 고
 통을 받았었다.
 내 아이야,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노라.
 내게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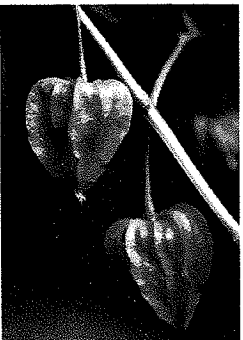
혹 네 길이 피곤하고 네 발이 피곤하여 절게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우울가에 이르렀을 때에 나도 피곤에 지쳐 너처럼 똑같이 고생하였다.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졌을 때 그 무게로 인하여 기절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에 지친 모든 자들에게 안식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네가 옳게 행하는데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말하느냐?
 나도 그 쓰라림을 알고 있다.
 나도 사랑하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받았단다.
 내 심장이 터져 죽었었노라.
 내가 내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였으나 저들은 나를 사랑치 않았단다.
 내 아이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나
 나의 사랑하는 마음에는 거짓이 없다.
 네가 하는 일 중에 낙망되는 일이 있느냐?
 네가 한 봉사가 헛된 것으로 보이느냐?
 나도 불신하는 자들, 재물을 얻고자 탐하는 자들을 섬겼단다.
 저들이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고 하나같이 나를 향해 비웃기까지 하였단다.
 네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진실한 종아
 용기를 가지라. 나도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였단다.
 너의 예민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내가 오늘 이해하노라.
 네 슬픔이 무엇이든지, 네 염려가 무엇이든지 그저 내게로 가져 오라.
 그렇다, 환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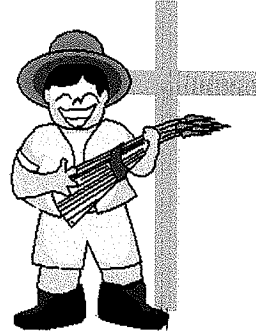
◀그뎌 그랬지▶ **과 리 불 기**

눈 부시게 맑은 가을에 주황색으로 열린 과 리, 우리의 가을
 은 그렇게 색깔이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안에 든 과 리
 열매를 손으로 만지작거려 말랑해지면 바늘로 안에 든 씨앗들
 을 빼냈습니다. 안이 비워진 과 리를 입에 넣고 바람을 넣었다
 댔다 하며 불면 '과르르'하는 소리가 났었죠. 뱀이 개구리를
 잡아 먹을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해서 과 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
 며 불지 못하게 해도 몰래 열심히 불었습니다.
 과 리불기는 실뜨기, 공기, 고무줄놀이와 고작이던 시절에 여
 자 아이들의 훌륭한 놀이감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무로 만든
 인조과리를 문방구에서 팔기도 했지만 담장밑의 '주황색 과 리
 추억'까지는 살 수 없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같은 교회'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경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월 18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아 버 지



"내 인생에는 언제나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빛은 멀리서부터 나를 인도하였지만 단순하게 강렬
 하지만은 않았고,
 그 빛은 늘 온화한 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제나 나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등대 옆을 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별 생각없이 배에서 내려 등대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낡은 등대문에는 조그마한 문패가 달려있었습니다.
 "아 버 지"

한국의 전통문화는 기독교 선교가 들어오기전 문화인지라 비기독교 문화인 것
 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통문화 속에는 기독교에 흡수되어 전승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부모님께 대한 '효'는 그것이 유교사상일지라도 결코 기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쩐 일인지 뉴질랜드에서는 남자보다 여성의 기가 더 세다고들 우스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서로 기 싸움을 해야할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아버지의 존재가 한국에서 보다 훨씬 약해져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성경
 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엡
 5:23)"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머리가 되어 평등하라고 하지만 '바보 같은 교회'는 바보처럼
 성경대로 믿고 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의 머리시라고 말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큰 일 날 말이지만 어찌겠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는데.
 왕이 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엔 왕비와 왕자, 공주들 뿐이지만
 몰락한 왕이 있는 폐궁에는 몰락한 왕비와 왕자와 공주뿐입니다

◀남편 기 살리는 말▶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
 ▶남편 기 죽이는 말▶
 "내 그럴 줄 알았어요 "

◀아내 기 살리는 말▶
 "당신 옆모습은 마치 그림같아"
 ▶아내 기 죽이는 말▶
 "당신 몸매 좀 가꿔"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2(시 143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543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장현중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3:4-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사랑은"(12) -말씀이 있는 사랑-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512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정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4	이규임	김인원	우리는...	이지형, 장현중
11	이재영	김인희	남여선교회장	전병주, 정관영
18	장현중	김종우		정성호, 정종일
25	정덕수	김종원	김창식, 민광자	조용건, 최득수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한국방문> *변민강 집사. 오신 후 처음 방문 길, 누이를 서로 모시려는 남동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셨습니다. 행복한 방문 되세요.
 *박경주 집사. '아이들 뒤치다꺼리 염려치 말고 다녀오라'는 아이 아빠의 든든한 후원에 용기내서 떠난 길. 잘 다녀오세요.
 <개업> 김창식, 민광자 집사. FUKU SUSHI(New Market). 번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Hole in One> 민광자 집사. 생애 한번 하기 힘든 추억! 오래 간직하세요
 *약 8년전, 저도 저녁에 혼자 나가 필드를 돌다 Hole in One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더욱 사랑합니다'
2. 오늘은 예배 후 BBQ를 하면서 '구역식구와 상견례'겸 설날 축하자리를 갖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해보자는 구역식구들의 합성 "화이팅~!"
3. 수요일예배탐방주간(3주차)
 *금주까지 이웃교회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여 드리는 탐방주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오성교회'에서 많은 교우들께서 만나셨다는군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4. 아동부 방학 Activity: Swimming *부모님들의 자녀 Pick Up 바랍니다
 <일시> 21일(수) 11시-오후3시 <장소> Grenfield Swimming Pool
 <회비> \$5 <지참물> 도시락
5. 학생부 "Hall Camp" <일시> 23일(금)-24일(주일). 1박2일 <장소>교회 Hall
 *또래끼리 자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여름수련회. 신앙에 유익이 되는 Camp를 위해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남선교회 Golf 친교모임(문의:박 실 집사)
 <일시> 22일(목) 오후 2시 <장소>Aviation Golf Club <식사> 저녁6시 Golf Club
7. 2003년 "성탄 축하의 밤" Video Tape 판매(\$10)
 *오늘 BBQ를 나누시면서 상영되는 '성탄의 축하의 밤'을 보신 후 Tape 구입을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신청바랍니다 (신청:전병주 목사)

◀시인들▶ '설날'中에서
-윤극영-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박기 좋아하세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윗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까지까지 설날은....". 겨울 햇빛에 고드름 녹아 떨어진 처마 밑에서 세뱃돈으로 풍성하게 보내던 아이들의 설날 오후. 그에 비해 질퍽한 행길옆에 펼쳐 놓은 가마니 위로 옷 던지며 겨울을 그렇게 보내던 동네 어른들의 설날은 그 깊이가 다른 설날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설날, 어른들의 삶의 흐름!